

시간의 감각,
물질의 기억

양구백자박물관

이진오
건축사사무소 더사이 대표

개요

위치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평화로 5182(장평리 344)		
용도	문화및시설(박물관),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대지면적	8,160m ²		
	(구)방산자기박물관	양구백자연구소	도자역사문화실
	전시동	체험동	
건축면적	603,56m ²	355,61m ²	428,17m ²
연면적	731,33m ²	355,61m ²	791,12m ²
규모	지하 1층, 지상 2층	지상 3층	지하 1층, 지상 2층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목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목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경량철골구조
주요마감	컬러노출콘크리트,다집흙벽, 전벽돌, U형성형유리블록	컬러시멘트벽돌, 시멘트블록, 노출콘크리트, 골강판, 목재플로링	집토벽돌치장쌓기, 노출콘크리트, 징크, 화강석
설계	이진오, 김대균, 허철호, 김덕훈	이진오, 박인영, 전우진, 이동준	이진오, 황미정, 박지용
협력설계	노마디자인(이영호), 성신기계설비, 동서엔지니어링	은구조, 주성MEC, 한길ENG	은구조, 성지ENC
시공	우산건설, 경민산업, 자연공간	안국건설, 경민산업	(주)삼원
설계기간	2004. 8.~2005. 4.	2012. 6.~2012. 9.	2018. 1.~2018. 6.
시공기간	2005. 6.~2006. 5.	2013. 3.~2013. 8.	2018. 12.~2020. 7.
건축주	양구군		



양구의 질 좋은 백토는 조선 왕실 관요에서
백자의 원료로 사용되었다. 또한, 금강산에서 발원한
하천의 물과 풍부한 댐감은 요업 발달의 조건을
완성해 주었다.



한구백자박물관 조감

박물관 도자역사문화실은 기능적으로
전시공간의 연장이자 수장고의 증축이다.
기존에 자리 잡았던, 시설들과
관계를 맺고 떨어져 있던 것을 이어주는
시간과 사람의 합동작업이었다.





도지역사문화실과 중정



©김재경



©김재경



©김재경

상·하 중정 회랑



© 김재경



© 김진숙

상 영상실
하 전시실 2



상 자료실
 하·좌 전시실 1
 하·우 개방형 수장고

상황과 쓰임에 대응하여
변주를 해왔지만,
대지에 대해 겸손한 앎음새와
흙의 물성에 주목하면서
보편 기술로 지으려는 의도는
지속되었다.



© 리진솔

양구백자박물관 도자역사문화실은 15년여의 시간동안 박물관의 작동을 지켜보면서 공을 들인 연작의 일환이다. 조선백자의 시원지(始原地)이자 원료의 산출지인 양구의 도자역사를 정립하고, 발굴조사에서 찾아낸 유물과 기증유물을 전시하기 위한 양구백자박물관 전시장 및 체험동, 입주작가 작업실 및 레지던시, 도자역사문화실에 이은 2020년 준공작이다. 현대백자와 기획전시실, 영상전시실, 개방형 수장고의 쓰임을 추가하면서 병렬이 아닌 순환하는 고리로서 일련의 작업을 완결하였다. 상황과 쓰임에 대응하여 변주를 해왔지만 대지에 대해 겸손한 앎음새와 흙의 물성에 주목하면서 보편 기술로 지으려는 의도는 지속되었다.

양구백자박물관의 시작

2004년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이 양구 지역의 유적 발굴조사를 벌인 데 따른 보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출토유물과 기증유물을 전시하고 생산하는 목적의 박물관 계획설계를 제안한 것이 계기가 되어 군립방산자기박물관을 실제로 설계하게 되었다. 박물관이 들어선 곳은 직역폭포 인근 양구군 소유의 주차장 부지였다. 백토를 품은 산이 사방을 둘러싸고 북측으로는 2차선 도로 건너편에 마을이, 남측으로는 논이, 남서쪽으로는 천(川)이 감싸고 도는 곳이다. 최초 박물관 건축에 쓰인 다짐벽에는 이 냇가의 흙을 사용하였다.

양구백자박물관의 증축

2005년 계획부터 증축을 고려하여 동측으로 증축부지를 남겨 두었다. 방문객들의 체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체험동 건립이 결정되었고, 입찰을 통해 춘천의 설계사무소가 낙찰을 받아 기존 박물관의 모티브를 차용한 체험동이 2009년 완공되었다. 이후 박물관에서는 늘어나는 공간수요와 미래 프로그램의 운영을 염두에 두고, 주변 부지의 매입 균유지의 합병을 통해 부지를 확대하였다. 이후 서울대학교 도예과와의 MOU를 계기로 2013년 백자연구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으로 도자역사문화실이 건립되어 2020년 7월 마침내 박물관 단지가 완성되었다.

원설계자와의 수의계약

정두섭 관장은 건물이 완공된 이후에 부임하였다. 설계자에게 누수 등 하자의 해결과 운영상 문제가 있는 공간의 변경을 상의하면서 인

©김계경



©deokho_inhwa



상 양구백자박물관 조감
하 양구백자박물관 남측 전경



상 도자역사문화실과 중정
중 영상실
하 개방형 수장고

연이 시작되어 소소한 건축 문제를 지속적으로 상의하면서 지속적으로 증축설계를 의뢰한 것이다. 그는 박물관이 통일된 맥락으로 증축되기를 바랐다. 감사에서 지적될 수 있음을 무릅쓰고 백자연구소와 도자역사문화실을 입찰이나 설계공모가 아닌, 원설계자와의 수의계약을 추진하였다. 우리도 그의 설득과 부탁에 동의하였다.

공간형식을 통한 기존 박물관의 관계

도자역사문화실은 기능적으로 전시공간의 연장이자 수장고의 증축이다. 따라서 기존 시설과의 연계가 중요하다. 배치도를 보면 점으로 존재하던 것들이 선으로 연결된 것을 알 수 있다. 단면도를 보면 부지의 단차를 이용하여 입체적으로 연결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기존 시설과의 사이에 아치 회랑으로 둘러싸인 마당을 형성하고 건물 안에도 중정을 두었다. 늘린 동선의 길이와 함께 겹쳐진 공간의 깊이는 방문자들이 이곳에서 시간을 길게 갖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재료를 통한 기존 박물관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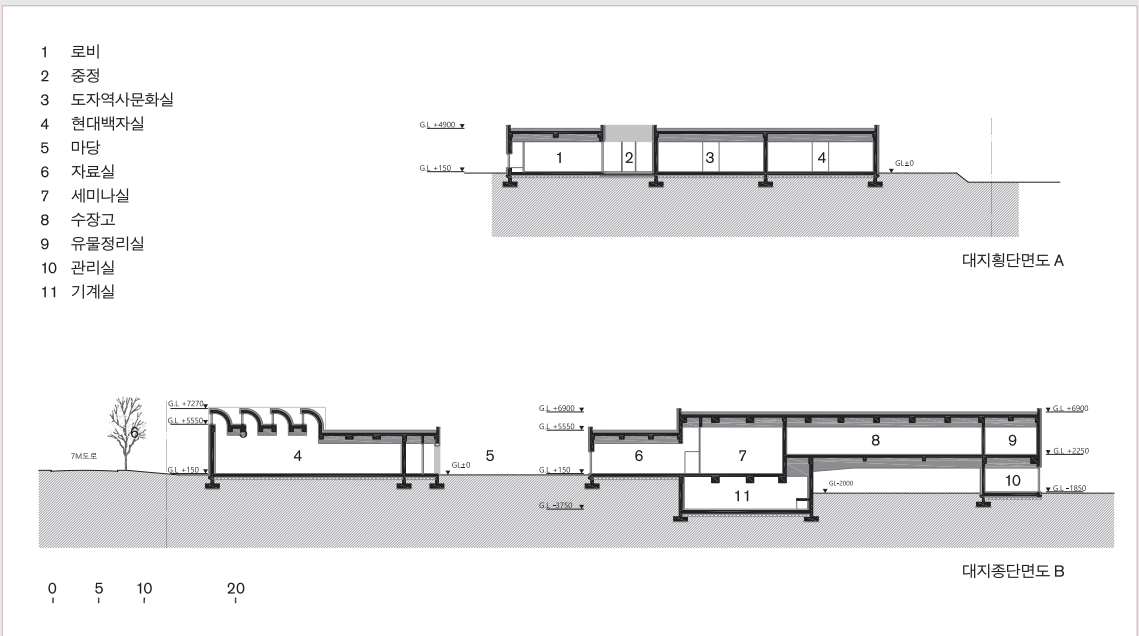
양구백자박물관에서는 백자의 원료가 되는 백토가 주인공이다. 처음부터 방문하는 분들에게도 쉽게 그 맥락을 설명할 수 있기를 바랐고, 따라서 재료의 물성과 그 쓰임을 통한 건축의 구법은 생각의 출발이 되었다. 다짐흙벽과 전벽돌, 시멘트벽돌(안료를 지정해 주문제작), 점토벽돌 치장쌓기는 본디 흙인 것을 건축화한 것이고 많은 노동력과 정성을 필요로 하는 구법이라는 점에서 도자기의 생산과정과 닮았다. 검은색 노출콘크리트의 안료 성분은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는 산화철이다. 유약의 원료로 쓰이던 느릅나무와 물푸레나무를 식재로 선택한 것도 개념적 맥락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발주처와의 협업

양구백자박물관을 작업하는 16년 동안 세 분의 군수에게 보고를 하였고, 행정과 계획을 협의한 관광문화과 담당자와 백자박물관의 직원도 여럿이었다. 하지만 방산자기박물관 시절부터 지금까지 다행히 정두섭 관장이 자리하고 있다. 처음에는 불만과 불평으로 만났지만 오랜 시간 함께 같은 장소를 고민하면서 서로를 신뢰하게 되었다. 그는 실비조차 되지 않는 수의계약을 통한 설계비에도 애정을 쏟는 건축가가 대견하였는지 일관되게 건축가의 설계의도를 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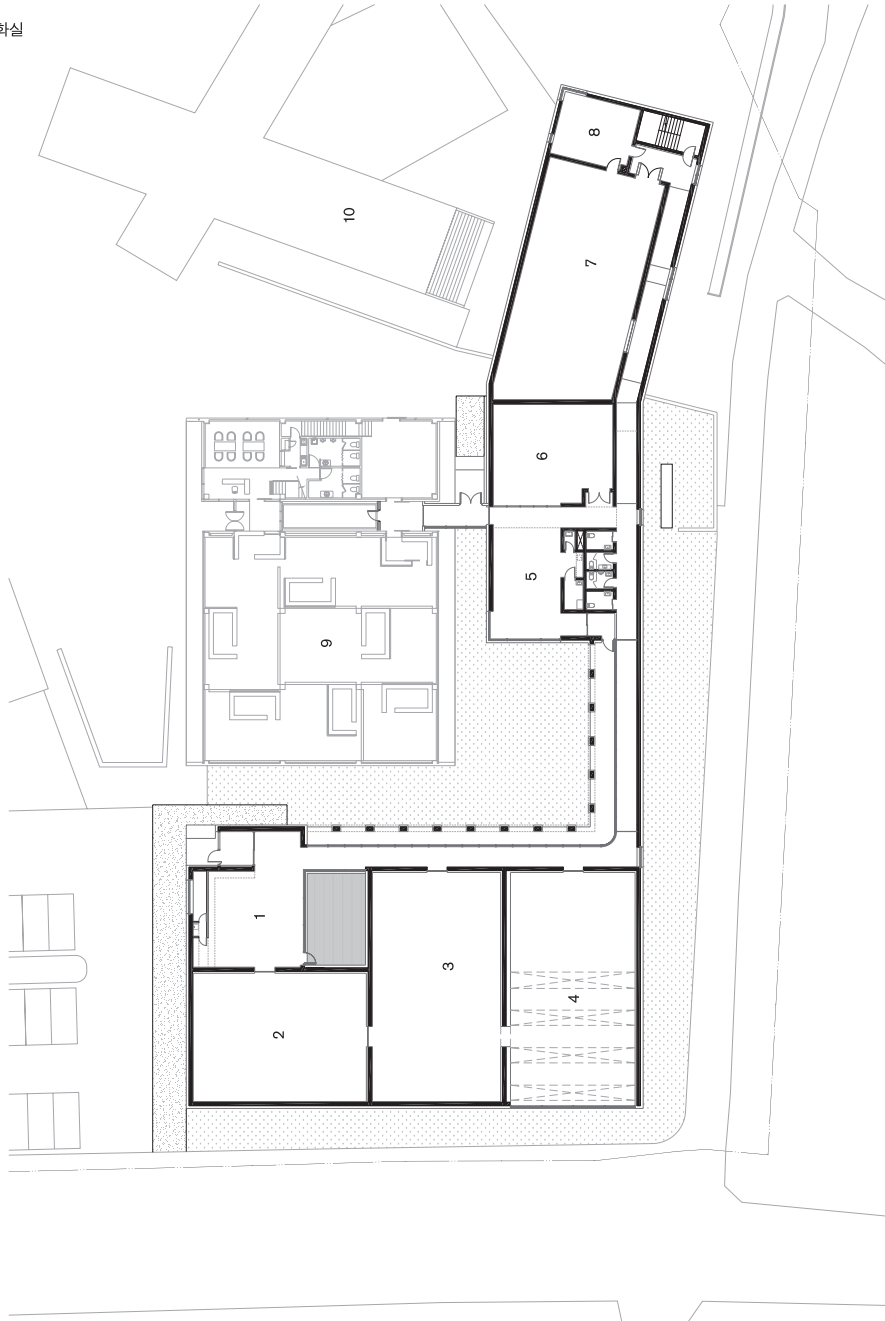


배치도



단면도

- 1 로비
- 2 기획전시실
- 3 도지역사문화실
- 4 현대백자실
- 5 자료실
- 6 세미나실
- 7 수장고
- 8 유물정리실
- 9 기존 박물관
- 10 백자연구소



평면도

해 주었다. 현장에 자주 방문하지 못하고 공공건축물의 제도적 특수성으로 감리의 권리가 없는 설계자를 대신해 건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고 지금도 공간이 그 쓰임새에 충실하도록 애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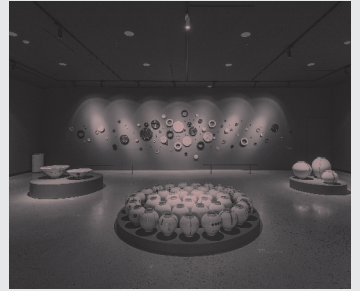
2022 공공건축상 대상 수상 배경

공공건축상 현장심사에 정 관장은 코로나에 걸려 함께하지 못하였다. 영상을 통해 심사위원과 대면한 자리에서 공공건축 발주의 기준이 되는 설계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수상의 결정사유가 될 수도 있다는 말에 그는 “제가 그 일로 계약부서와 다투고, 감사에서 수차례 경고와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떳떳하고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작업의 결과가 나쁘지 않았고, 이후에도 성실하게 대응하는 것을 보고 이진오 소장은 실력과 신의가 있는 건축가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중축도 같은 사람이 맡아서 완성해 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설계를 부탁하고 행정을 설득해서 진행한 것입니다”라고 답하였다. 나도 그 마음이 고마워서 일하였다. 시공의 품질은 형편없지만 품격을 유지하고 있어 다행이다.

공공건축 제도 보완

공공건축과 관련한 법과 제도는 효율등급이 나쁜 가전제품과 같다. 국민들은 건축 과정에서 공정 안전 친환경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지는 제도와 규칙의 상호모순, 책임을 분산시키는 절차와 조달등록 제품의 이윤을 보장하는 시스템이 문제이다. 기획, 예산 편성부터 설계자를 선정하는 설계공모 과정에서는 부단한 노력을 들인다. 반면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은 로또복권 당첨과 같은 가격입찰이 대부분이다. 어이없게도 더 나쁜 턴키로 돌아가자는 말이 나올까 두렵다. 상대적으로 민간건축에서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는 이유를 살펴보면 답이 나온다.

◎건축술



◎내재적



상 전시실 2
하 자료실